

대상해(大上海)의 고동소리

중국을 횡으로 가로 지르는 장강(長江)을 오른 쪽에서 끄는 중국 근대화의 상징 상해가 장강델타, 강소성, 절강성을 합하여 대상해(The Greater Shanghai)로서 큰 고동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는 성공했다” 2010년 만국박람회가 상해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결정되자 남경동로에 모인 시민들이 한 목소리로 한 말이다. 그러나 그 전에 벌어지는 일도 많다. WTO에 가입하자마자 대형 이벤트가 차례로 상해에서 개최되는 것이다. 우선 금년도에는 리니어 모터카가 완성된다. 그리고 절강성의 유서 깊은 항구도시 Ningbo(寧波)를 잇는 세계 최장의 해상교가 착공된다. 이것이 완성되면 상해-닝보 간은 자동차로 2시간이면 갈 수 있다.

세계적인 자동차 도시가 될 상해에서 2004년도에는 고속레이스카 F-1대회가 열리게 되며 2006년에는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유치된다. 명실공히 아시아를 대표하는 도시의 면모를 갖추는 것이다.

그러나 대상해의 위대한 면모는 외형에 그치지 않는다. 상해시는 외자를 유치하는데 중앙정부에 못지 않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유체에 힘을 쏟고 있는 지주회사의 경우 법정 자본금이 3000만 달러다. 상해 정부는 이 거액이 지주회사의 설립을 방해하는 것을 알고 작년 7월 지주회사와 동등한 기능을 갖는 ‘지구총부’ 회사제도를 설치하여 200만 달러의 자본금으로 설립이 가능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사원의 연수비 일부를 시정부가 부담해 주었다.

비즈니스환경에 있어 대상해권의 우수성은 공식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2001년 중국공산당학교가 제출한 ‘중국지역별 혁신능력 보고’

에서 전국 31개 성급 지역의 기술혁신 능력을 평가·분석한 결과를 보면 상해가 1위고 북경이 2위다. 또한 북경-천진권, 대상해권, 발해만권, 주강삼각주권이라는 4대 대규모 지역에서 인적자원, 기술혁신, 자본형성, 신제도창조, 규모의 경제라는 5대 평가항목에 의해 평가한 자료에 의하면 (각 항목 최대 3개의 별) 대상해권이 별 33개로 북경-천진의 별 29개를 많이 앞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앙정부와 중관촌이 북경에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상해시를 둘러싼 강소(江蘇)성과 절강(浙江)성의 도시들은 구미, 일본, 대만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지역이다. 한 예로 대만기업이 뽑은 투자추천지역의 4등급에서 최우선 등급으로 선정된 6개의 도시(蘇州, 寧波, 吳江, 余佻, 昆山, 無錫)는 모두 대상해에 위치한다.

이들은 상해의 발전을 지지할 뿐 아니라 스스로 특색을 발휘하고 있다. “곤산은 다른 도시보다 통관이 2시간 빠르다” 이곳에 투자한 한 대만기업인의 말이다. “우리는 외자가 필요 없다. 자력으로 한다” 중국최초로 공항을 지역의 민자를 동원하여 민영기업에 완공시킨 온주(溫州)시 시장의 자신만만한 말이다. 이러한 말들이 상징하듯 절강성은 중국에서 기업가의 양성이 가장 앞서서 있는 곳이다. 절강성에서 개발한 노하우를 광동성에 가르치는 것이 목표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중국대륙을 좌우로 가르는 장강의 입구에 있는 상해를 용머리로 비유한다. 이 용머리가 점점 커지며 자본주의의 하늘로 승천할 형세다.



CJK스트래티지는 국내외 정상급 전문가들로 구성된 컨설팅회사로, 국제적·전략적 이슈들에 대한 신속한 정보 및 분석 등을 제공하고 있다.